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저작에 나타난 자유교육 이상 -이성과 진리, 행복한 삶-

전문

진은혜 성균관대 교육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I. 서론

예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며 무지, 오류, 억측,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전통 사상은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고 지식을 이해하는 ‘관조(theoria)’에 목적을 두는 교육의 정신을 중시한다. 이러한 교육의 정신을 지향하는 자유교육은 교육의 원형이자 전형, 그리고 이상적인 교육을 말하는데 대체로 인간의 마음 혹은 영혼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교육을 일컫는다(유재봉, 2004). 자유교육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강조하며 교육의 본질을 탐구하여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희랍의 형이상학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교육은 중세에 이르러 종교적 철학의 흐름과 만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자유교육의 철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종교적 측면과 결부시켜 인간이 진리에 접근하는 출발점으로서 이성을 중시하며 창조주인 신의 질서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자유교육을 논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86년 밀라노의 정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집어 들고, 읽어라(Tolle lege, tolle lege).”는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다. 그는 회심 후, 수사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친구인 베레쿤두스의 카시키아쿰 별장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책들을 저술했다(고백록, 8,9권). 그해 가을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저작인 카시키아쿰 대화편은 『아카데미아학과 반박』(Contra Academicos), 『행복한 삶』(De beata vita), 『질서론』(De ordine), 『독백』(Soliloquia) 이다¹⁾ 이 저작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세속 교육에서 기독교 진리 중심의 자유교육으로 전환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초기 작품들이다(이정인, 2022).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카데미아학과 반박』, 『행복한 삶』을 통해 자신의 자유교육 이념을 제시하며, 『질서론』을 통해 자유 교과를 구상한다(신경수, 2019). 이 글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저작들을 통해서 자유교육의 목적과 인식 구조, 자유교육의 본질과 구성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자유교육의 이상에 대해 고찰한다.

1) 『독백』(Soliloquia)은 미완성

II. 자유교육의 목적과 인식 구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초기 저작에서 명확하게 자유교육의 목적과 지식을 인식하는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젊은 시절부터 진리를 찾아 헤맸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을 접하게 된 이후 기독교로 회심을 하며 인간의 행복에 대해 고찰하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 교육에 관심을 갖었으며 자유학예에 대해 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바 자유교육의 목적과 회의주의를 넘어서는 진리 발견, 교육에서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1. 자유교육의 목적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행복하고, 진리를 통해서 최고의 법도에 이르는 자는 누구든지 행복하게 되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으로 본다(행복한 삶. 2.11, 4.34).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인간은 진리를 통해서 지복의 상태가 되는데, 그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가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맞는 말이나 지식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변치 않는 절대적인 실재로 보았다. 그는 진리에 대해 “나는 진리다”라고 선언하는데(행복한 삶. 4.34) 이 문구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기에 그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정확히 다시 집자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최고의 법도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를 통해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하는바, 진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의 초기 저작에 의하면 진리는 이성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며 이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학예가 필요하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한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해야 하며 진리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지복의 상태가 된다(아카데미아학파 반박. 1.9.25). 즉, 자유학예를 통해 훈련된 이성은 진리(신)를 보게 하여 진리를 봄으로써 이루어지는 신인식은 지복의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 진리를 알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유는 고대 자유교육에서 인간의 무지, 편견, 억측,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을 갈망했던 자유교육의 이성적 활동과 최고의 형태인 관조를 고유의 특징으로 하는 자유교육 철학 사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시점은 종교적 교육철학이 시작한 시점으로 신인식(진리 발견)을 통해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행복을 자유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즉, 인간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복음 8:32).

2. 회의주의를 넘어서는 진리 발견

고백록에 의하면 9년간의 마니교도로 생활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는 마니교도인 파우스투스(파우스트스)가 학예에 뛰어나다고 믿었는데 그가 무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자 그에게 실망하기 시작했고, 마니교 종파에 정진하려고 결정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든 노력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백록. 5.7). 그는 우연히 입수한 플로티누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철학의 탐구로 지적 해탈(intellectual liberation)을 얻어 내려는 욕구에 휩싸이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받았다. 이 시기는 그의 철학적 탐구와 신앙적 갈망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철학이란 그의 저서 『독백』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의 철학의 기본 주제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과 영혼을 알고 싶다. 더이상 아무것도 없는가?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는 문답으로 피력되었다. 즉, 그의 철학 사유의 근원은 하나님과 영혼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에 다다르려는 방편으로 철학적 탐구가 필요했던 것이다(독백. 1.2.7).

철학은 미신(迷信)으로부터, 내게[나만 아니고] 나와 함께 그대마저도 떨어뜨린 저 미신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철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략) 철학은 더없이 진실하고 더없이 감추어진 하느님을 자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그리고 밝게 비치는 구름을 통해서 벌써 그분을 거의 보여 줄 지경입니다 (아카데미아학과 반박. 1.1.3). 로마니아누스여, 우리 철학합시다. (중략) 철학에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는 한 진리 자체를 못 볼 테니까요(아카데미아학과 반박. 2.3.8).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미신(마니교)에서 해방된 것은 철학 덕분이라고 선언하며 철학을 더없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철학에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으면 진리 자체를 볼 수 없으니 진리 자체를 바라보기 위해 철학을 해야 한다는 철학의 가치를 설명하며 형이상학적 사변과 더불어 사람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신념을 피력한다.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두 가지 악습과 장애가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진리를 과연 발견할 것인가를 두고 실망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당신이 이미 발견했노라고 믿을까 하는 것인데(아카데미아학과 반박. 2.3.8) 바로 이러한 아카데미아학파의 ‘회의주의’이나 ‘선입견’이 진리 탐구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인식은 카시키아쿰 대화편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진리 탐구 방해 요소는 진리 인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진리 탐구 자체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하며 ‘셋 곱하기 셋은 아홉’과 같은 수학적 진리는 확실한 진리가 되므로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회의론은 틀렸다는 것이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찾아라,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문구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를 인용한 것으로 진리 인식에 관해서 회의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찾고 구해야 진리 인식이 더 분명해질 때가 오히려 옳다고 여겼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지성인들에게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라 확신했다. 그의 진리 발견에 대한 열정은 진리 탐구에 헌신하기로 한 『아카데미아학파 반박』 결론에 잘 나타나 있다.(아카데미아학파 반박 3.20.43)

3. 교육에서 이성의 역할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저작인 『아카데미아학파 반박』, 『행복한 삶』, 『질서론』은 모두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독백』은 책의 제목 그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혼자만의 독백임에도 불구하고 ‘나(ego)’와 ‘이성(ratio)’과의 대화편으로 작성했다. 이 대화편들의 공통점은 모두 화자들이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독백 재론고에서는 “내가 묻고 내가 내게 답하고 하면서, 마치 이성과 내가 두 사람인 것처럼 썼다. 내가 나 혼자이면서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나는 그 책에 ‘독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독백. 1.4.1).”라는 추가 설명을 붙이며 배움의 시작과 진리를 알아가는 출발점을 묻고 답함에 두었다. 이렇듯 이성은 생각하고 묻고 답하는 능력으로 학문을 알아가게 하고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이성이란 우리가 학습하는 것을 구분하고 종합하는 지성의 작용이라 정의했다(질서론. 2.11.30).

아우구스티누스는 『독백』에서 이성(ratio)을 가리켜 ‘영혼의 시선’이라고 일컬었는데(독백. 1.6.13) 그는 플라톤의 철학 전통을 계승하여 이 세계를 감각계와 지성계로 구분하고 인간이 감각(感官)을 통해 사물을 파악하듯이 그는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물체가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빛이 있기 때문이고, 물체적 특성은 빛에 비추임을 받지 않으면 간파되지 않으며 학문에서 누가 무엇을 진리라고 인식한다면 그 태양이신 분으로부터 비추임을 받지 않는 한 진리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독백. 1.8.15). 훗날 『독백』재론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이성의 빛이 있고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불변하는 진리를 관조하여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으며 ‘영원한 이성의 빛’이라는 표현을 통해 신적 조명설을 언급했다(재론고. 1.4.4).

『질서론』에서는 영혼이 철학에 전념하면 먼저 영혼 자체를 성찰하게 된다고 밝히며 학습이 그에게 이성이 자기 것이라거나 자기가 곧 이성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나면 이성에서는 수보다 더 훌륭하고 위력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이 생기거나, 이성은 곧 수라는 신념이 생기거나 한다(질서론. 2.18.48). 이 대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철학에 전념하면 영혼 자체를 성찰하게 되어 자기가 곧 이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성과 수의 동일화 개념을 말하는데, 이성과 수(數)를 동일화 한 것은 수는 단순한 계산 능력이라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 정확성을 취하고 있기에 질서 그 자체의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성인 자기 자신이며, 불변의 진리를 인식하며 질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요컨대,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바, 이성은 학문의 출발점이자 진리를 탐구하는 길잡이이며, 후기에는 이성에서 ‘영원한 이성의 빛’을 받아야 진리를 인식하는 것으로 다소 변화했다.

III. 자유교육의 본질과 구성

앞 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교육의 목적은 지복의 상태이며, 지복의 상태가 되기 위해 회의주의자를 따르는 것이 아닌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교육 과정 안에서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논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자유교육의 본질, 원리, 내용으로서의 7자유학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질서 인식으로서의 자유교육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은 질서 자체다. 하느님은 바로 이 점을 사랑하시는데, 선한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바로 그 점이 위대한 질서에 해당하고 신적인 안배에 해당한다(질서론. 7.18).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생활하였던 것과 마니교에 빠져 혼란한 시기를 보냈던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²⁾ 그 모든 혼란의 생활을 질서정연하게 정돈하듯 『질서론』을 집필한다. 언뜻 보아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는 혼란의 시절을 보낸 듯하나 그의 저서 『질서론』에서는 그의 혼란의 시절을 돌이키며 인정하고 청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생애를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시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혼란의 세월을 보낸 것을 하나님의 ‘질서’ 관점으로 보고자 하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찾고자 한 노력이기도 하다. 질서 자체이신 신의 창조 질서에 따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2) 고백록 제5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들이 거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층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며,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해한 것이 더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주창한대로 모든 것에 대하여 의심해 보고 모든 것을 저울질해서 보고 나서 철학자의 견해가 마니교의 견해보다 더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후 철학자들에게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병든 영혼을 치유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음악에서도 기하에서도 성좌의 운동에서도, 수(數)의 필연성에서도 질서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고 하며(질서론. 2.5.14) 학예 안에 질서가 있음을 보았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학예를 연구하는 것이며 아무런 오류 없이 인도받는 것을 학습(學習)으로 보았다. 즉, 자유학예야말로 인간이 자연과 예술에 속에 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질서를 만든 신을 잘 아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질서론. 7.21).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주 신을 알아가는 질서의 방편으로 3학(trivium: 문법, 변증법, 수사학) 4과(quadrivium: 음악, 기하학, 천문학, 산술)를 제시했는데 자유학예는 후대 중세 교육에서 체계화된 7자유학예의 원형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논리와 화법을 통한 이성의 정화(trivium)와 수적 질서를 통한 존재 이해(quadrivium)를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님 인식에 이른다고 보았다. 중세 학자들은 카펠라의 문학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7자유교과를 발전시켰지만, 자유교과의 존재 이유를 밝혀 주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었다면 800년 동안 7자유교과에 천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신경수, 2019). 신의 질서는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질서론. 1.11.23) 『질서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입장은 플라톤의 철학적 전통의 상승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진리는 감각이 아닌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이성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인간은 적절한 학문적 훈련을 통해 신적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한 삶』에서 아무런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 자유학예의 맛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을 흡사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유하였는데(행복한 삶. 2.8) 이는 교육이라는 과정이 허기를 채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았으며, 학문을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필수 조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유교육을 인간의 내면 형성과 진리 인식, 나아가 궁극적 행복에 이르는 시도이며,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 전통을 기독교적 진리 속에서 심화·완성한 사상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2. 자유교육 원리와 내용으로서의 7자유학예(liberal arts)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저작에서 자유교육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간접적·철학적 형태로 언급되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질서론』에서 다루고 있다. 『질서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상 자유학예의 교육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자유학예의 구성 흐름은 감각적 세계를 인식하고 언어와 표현을 훈련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냄에 있다. 3학 4과를 단순히 기초과목과 교양과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질서의 방편으로 7자유학예를 제시했다. 7과목 중 기초과목으로 3학(trivium: 문법, 변증법, 수사학)과 교양과목으로 4과(quadrivium: 음악, 기하학, 천문학, 산술)를 언급했다(질서론. 2.5.14, 2.13.38).³⁾

3) 자유 학예에 관해 실제로 집필한 교재는 『문법론』 De grammatica와 『음악론』 De musica 두 권이 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육내용으로 왜 3학 4과를 선택했는가. 3학 4과는 단순한 기초과목과 교양과목으로서의 교육내용, 즉 프로그램으로써의 과목이 아닌 이성을 통한 진리를 인식하는 원리로서 7자유학예를 통해서 철학을 깨우쳐가고 신인식을 위한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특히 플라톤의 가지계 사상은 이성을 통한 진리 발견의 측면이 있는데 7자유학예는 이성을 통해 알아감으로써 형이상적 측면의 진리 발견의 가능성을 보았다. 『질서론』 집필 이후 이듬해에 출간된 『영혼의 위대함』에서는 자유학예에 대해서 “이런 유의 학문은 그만큼 정신을 도야해서 그보다 훨씬 정교한 사안을 파악하도록 돕는다(영혼의 위대함. 15.25).” 라고 자유학예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학예들이 단순한 세속 학문을 넘어서서 훨씬 정교한 사안인 철학과 진리 발견, 신인식과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으로 간주한다.

(1) 3학 trivium: 문법, 변증법, 수사학

3학 trivium은 고대 서양 교육의 기초과목으로 구성했는데 이 과목들은 감각적인 세계의 혼란에서 벗어나 언어와 논리를 통해 이성을 정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문법, 변증법, 수사학은 언어와 논리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언어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이성을 훈련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본격적인 진리 탐구 이전에 기초 학문을 다질 수 있는 과목이다. 문법(grammar)은 입에서 나오는 같은 소리들이 달리 소리남을 파악하여 이성에 의해 소리를 문자로 기호화한다(질서론. 2.12.36). 이성은 문자들을 모음, 반모음, 묵음이 라고 명명하고, 음절을 다룬다. 그리고 나서 어휘들을 여덟 개의 종류 내지 형태로 분류하고서, 모든 변화, 어원, 구문이 전문적으로 또 상세하게 분류했다. 더 나아가서 어휘의 운율과 배율도 잊지 않고 다루었다(질서론. 2.12.37). 문법 과목은 올바른 언어 사용과 텍스트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미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또한 진리를 왜곡없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이기도 하다. 설화는 어떤 교훈상의 용도나 오락을 위해서 꾸며진 거짓말이지만 문법은 분절(分節)된 단어를 보존하고 규제하는 학문이다. 아울러 『독백』에서는 문법에 대해서 참된 학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독백. 2.11.19). 문학과 역사도 이 학문에 편입되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변증법(dialectica)을 학문 중의 학문으로 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 놓으며 변증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 변증술은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여겼다.(질서론. 2.13.38). 변증법은 단순히 논리적 유희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철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변증법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변증법의 논리는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 사실과 지식, 거짓과 같은 근본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진리의 조건을 규명하려는 철학과도 같은 맥락이다. 예를 들어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참인 것이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변증법은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하고, 모든 지식을

하나의 커다란 질서 속에 배치하는 힘을 길러 준다. 이렇듯 변증법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며 그 자체가 이치요 진리로 사용할 수 있다(독백, 2.11.21). 문법과 변증술 과목을 수행해 내는 몫은 수사학(rhetorica)이며 수사학은 ‘생활의 필요’, ‘순수한 인식’을 이루어 주는 수단으로 소개된다(질서론, 2.13.38).

(2) 4과 quadrivium: 음악, 기하학, 천문학, 산술

아우구스티누스가 음악, 기하학, 천문학, 산술과목을 자유학예로 선정한 것은 과학적 토대 위에 있는 학문으로써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 가능하고도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절대 불변의 진리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과 quadrivium을 통해서 절대 불변의 지식과 진리를 인식하고 결국 창조주 신을 알아가는 신인식을 알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4과 중 음악(musica)은 피리와 비슷한 악기들에서 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거문고, 현금, 바라 그리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모든 것이 속한다(질서론, 2.14.39). 음악은 감각과 오성이 함께 참여하는 학문으로 감각에 속하지만, 이성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하학(geometria)은 보이지 않는 질서를 가시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수직 질서를 통해 이성을 훈련하고, 이해 가능한 질서로 이끈다(질서론, 2.14.39). 천문학(astronomia)은 우주 질서를 논하는 학문으로 천체의 운동, 우주의 규칙성을 알아갈 수 있다. 거대한 우주마저도 창조주 손에 있는 것이며 질서에 움직이는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의 웅대함, 자연의 위대함 너머에 살아계신 창조주의 손길을 천문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천계의 운동이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어서 진지하게 고찰하라고 촉구하였다. 천문에 대해서는 “종교심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논거가 되고 호기심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고문이 된다(질서론, 2.15.42).”라고 하며 천문학을 빙자한 미신적 점성술을 규탄하며 구분하기도 했다. 산술(arithmetica) 과목에서는 수(數)에 대해 감각 세계가 아닌 이성으로 파악되는 것이며 항존적 영원한 질서의 인식 방법으로 우위에 두었다. 수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 제반 학문에서 유래하는 지식으로 인식했다(질서론, 2.16.44). 즉, 수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영원불변의 질서와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자유학예 모든 과목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게 하고 훈련시키는 단계로 여겼다.

IV. 결론

본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저작에 나타난 저작들을 통해서 자유교육의 목적과 인식 구조, 자유교육의 본질과 구성을 알기 위해 『아카데미아학파 반박』 (Contra Academicos), 『행복한 삶』 (De beata vita), 『질서론』 (De ordine), 『독백』 (Soliloquia)을 살펴봄, 자유교육의 목적, 진리 발견, 교육의 이성의 역할, 질서 인식으로서의 자유교육, 자유교육의 원리와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어져 오는 자유를 향한 갈망과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유교육 정신은 중세의 자유교육의 정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고대 자유교육과 중세의 자유교육은 자유를 향한 갈망과 진리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맞닿아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교육을 고대의 철학적 측면과 더불어 종교적 진리로 승화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을 통해 단순히 과목을 학습하는 것으로 자유교육의 본질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성을 통해 진리 발견을 추구했으며 그 진리로 인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저작에서 이성으로 자유 학예를 학습하면서 철학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에 대한 인식은 한걸음 더 나아가 철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신적 조명(divina illuminatio)의 차원으로 변화되는데, 그는 자유학예를 통해 훈련된 이성은 진리(신)를 보게 한다는 신인식은 태양이신 분으로부터 비추임을 받지 않는 한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즉, 자유학예를 통해 인간 이성 활동으로 인한 철학적 사유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인간 내면의 인식 능력이 초월적 근원자로부터 비추임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즉, 신적 조명으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저작에서 나타난 ‘철학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음’과 ‘신적 조명으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음’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철학적 측면의 진리 발견과 종교적 측면의 신적 조명 사이에 다소 긴장이 있을 수 있으나 철학과 신적 조명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철학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나, 신적 조명은 그러한 진리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치 빛과 눈(시각)의 관계와 같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빛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가 되기 전에 철학적, 율법적, 세속적 지식이 풍부했으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신의 조명을 받은 후 회심하게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신을 보게 되고, 진리에 다가가는 영적인 눈이 뜨인 것과 같다. 회심한 사도 바울은 이후 자신의 율법적 종교적 지식에 대해 더이상 가치가 없다며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 성경의 수많은 저서를 남기기까지 그가 쌓은 배경 지식이나 교양이 함께 작동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궁정 수사학 교사를 할 정도로 박식한 인물이며 그의 초기 저작들을 탐구해 볼 때 철학적 지식과 이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하다. 자유학예를 배움으로써 이성이 작동하게 되며 철학적 지식의 탐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즉, 자유학예들은 단순히 세속 학문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을 알아가는 학문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신적 조명’을 통해 인간의 철학적 이성과 신적 조명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더욱 깊은 자리의 진리 인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요컨대 이성은 진리를 탐색하고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며, 신적 조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아우구스티누스(387). 『독백』. 성염 역 (2016). 칠곡: 분도출판사
_____ (386) 『질서론』. 성염 역 (2016). 칠곡: 분도출판사
_____ (390) 『참된 종교』. 성염 역 (2016). 칠곡: 분도출판사
_____ (386) 『아카데미아학파 반박』. 성염 역 (2016). 칠곡: 분도출판사
_____ (387) 『영혼의 위대함』. 성염 역 (2019). 칠곡: 분도출판사
_____ (386) 『행복한 삶』. 성염 역 (2016). 칠곡: 분도출판사
신경수(2019). 『아우구스티누스 7자유교과의 철학적 근거』. 새한철학회논문집 Vol 98, No 4
유재봉(2004). 『종교적 자유교육론 연구』. 한국교육사학 Vo 126, No 2, pp 149-175
이정인(2022). 『자유교육에서 종교의 지위: 아우구스티누스의 질서론과 참된 종교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Vol 36, No 4. pp 119-141
Brubacher, J. S.(1966).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McGraw-Hill.